

기획특집 [2]

한·미 FTA 체결이 국내 사료산업에 미치는 영향



김정주 교수
건국대학교
자연과학대학

1. 국내 배합사료사업의 개관

2006년 배합사료 생산실적이 2005년보다 2.6%늘어난 15,079천톤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료협회가 발표한 2006년도 배합사료 생산실적을 보면 2005년보다 396천톤이 늘어났다.

축종별로는 비육우 사료가 2005년보다 8.5%나 늘어난 3,574천톤, 양계사료는 1.5% 늘어난 4,267천톤, 양돈 사료는 0.1% 늘어난 5,175천톤, 낙농사료는 전년보다 3% 줄어든 1,539천 톤으로 집계됐다.

축종별 비중은 비육우 사료가 23.7%, 양계사료가 28.3%를 보였으며 양돈 사료는 34.3%, 낙농사료는 10.2%, 기타가 3.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축종별 배합사료 생산량은 1992년을 기준하면 낙농을 제외하고는 증가하였고, 최근(2002년)을 기준하면 비육우와 양계는 증가추세, 양돈과 낙농은 감소추세에 있다. 이처럼 비육우와 양계 사료생산실적이 늘어난 것은 미국 산 쇠고기 수입이 보류된 여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생산업체별로는 농협 사료가 4,674 천톤(31.0%), 사료협회 회원사는 10,203 천톤(67.7%), 기타는 202천톤(1.3%)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배합사료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표 1. 연도별 축종별 배합사료 생산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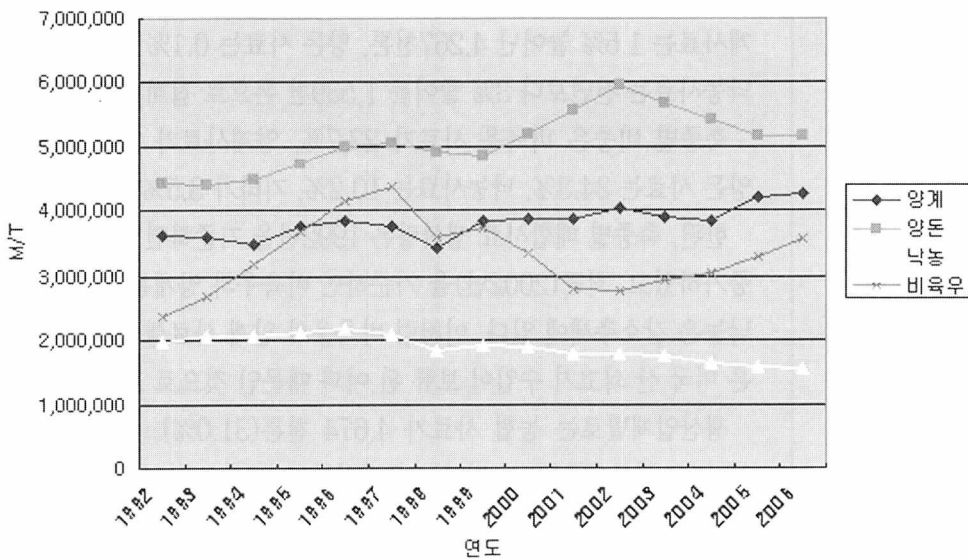
(단위: 톤)

	계	양계	양돈	낙농	비육우	기타
1992	12,693,098	3,615,702	4,437,102	1,955,656	2,351,350	333,288
1993	13,027,062	3,610,459	4,396,895	2,054,073	2,661,603	304,032
1994	13,544,871	3,487,168	4,476,588	2,056,198	3,194,008	330,909
1995	14,695,376	3,766,498	4,725,338	2,094,613	3,680,860	428,067
1996	15,783,468	3,849,052	4,994,745	2,167,761	4,136,491	635,419
1997	15,849,958	3,762,959	5,061,792	2,086,602	4,366,531	572,074
1998	14,153,460	3,423,341	4,917,762	1,833,196	3,605,432	373,729
1999	14,856,316	3,845,544	4,872,431	1,915,905	3,739,155	483,281
2000	14,932,221	3,866,969	5,214,648	1,891,561	3,339,686	619,357
2001	14,773,669	3,873,545	5,549,480	1,770,809	2,759,854	819,981
2002	15,601,679	4,053,177	5,949,977	1,764,410	2,752,883	1,081,232
2003	15,257,131	3,907,482	5,663,340	1,744,215	2,926,271	1,015,823
2004	14,751,062	3,836,210	5,419,107	1,632,431	3,044,571	818,743
2005	15,079,579	4,203,365	5,169,675	1,587,452	3,292,880	826,207
2006	15,079,000	4,267,000	5,175,000	1,539,000	3,574,000	524,000

자료: 농림부 축산국

그림 1. 연도별 축종별 배합사료 생산실적

(단위: 톤)



2. 미국의 옥수수 가격 전망

한동안 미국 내에서 에탄올 등 옥수수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이 본격화 되면서 옥수수 수요가 늘어나자 옥수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사료업계를 긴장시켰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상황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 감지되었다.

그동안 옥수수가격이 상승하자 여기에 힘입은 농가들이 정부보조를 받아 휴경하던 농지에 옥수수를 다시 생산하기 시작하여 옥수수 생산량 증대가 예상되므로 옥수수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옥수수 파종 면적은 2006년에 78백만 에이커이던 것이 2007년에는 90.5백만 에이커로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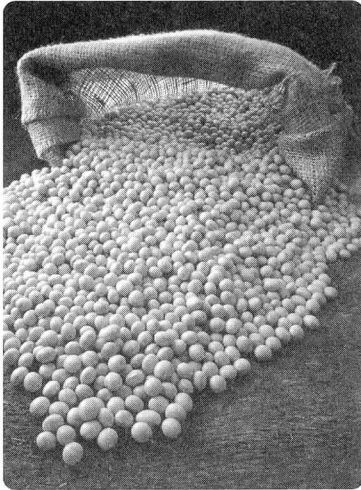
또한 곡물가격 상승에 영향을 크게 미치던 해상운임도 지난해 강세를 보였던 것과 달리 신조선박 출하가 늘어나고 물동량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하락세로 반전되고 있는 것도 곡물가 하락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세계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진입하자 곡물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옥수수가격이 상승하자 투기성 펀드들이 대거 곡물선물시장에 뛰어들어 옥수수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겼는데 최근에는 곡물선물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곡물가격하락을 부추기는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 요컨대 지금까지 상승국면이던 옥수수 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한·미 FTA 체결이 사료업계에 주는 영향

한·미 FTA가 체결되면 주요 사료원료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어 사료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사료 원료 곡에 대한 관세가 배합사료 가격 하락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배합사료 원료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옥수수 수입은 TRQ(Tariff Rate Quota) 방식에 의하여 수입되고 있어서 이미 0~3%의 관세만을 물고 수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TRQ 방식이란 상품의 정해진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붙이되 이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사료용 옥수수에 대하여 처음에는 TRQ물량을 610만톤으로 정하고 이 물량



에 대해서는 1.8~3.0%의 낮은 관세를 물렸다. 그 후 옥수수 수입물량이 610만톤이 넘을 것이 예상되어 옥수수 TRQ물량을 추가로 430만톤을 0~2.0% 관세 조건으로 늘렸다. 따라서 우리나라 옥수수 TRQ 물량은 모두 1,040만톤이 된다. 만일 우리나라 사료용 옥수수 수입량이 1,040만톤을 넘어서면 넘어선 물량에 대해서는 328%의 높은 관세를 물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옥수수 수입량은 최고 860만톤에 그쳐 모두가 TQR 물량 이내이므로 전량 0~3.0%의 매우 낮은 관세를 물고 수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 FTA 체결로 사료곡에 대하여 무관세를 적용하면 0%의 관세 물량은 전혀 영향이 없고 3%관세 물량은 배합사료 가격하락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옥수수를 제외한 다른 사료원료의 관세절감액은 사료용 근채로 851백만원, 기타 보조사료로 348백만원, 대두(채유 및 박유)로 661백만원 등 1,860백만원 정도의 관세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료산업이 관세 절감 수혜는 극히 낮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요컨대, 제조업이라도 사료산업은 한·미 FTA 체결로 크게 덕 볼일이 없어 보인다.

4. 한·미FTA 체결이 국내사료산업에 미치는 간접피해

그러나 가축사육두수 감소로 인한 간접 피해로 사료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임은 쉽게 예상된다. 특히, 가격 경쟁력에서 절대적으로 뒤지고 있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관세가 철폐되면 서 가축 사육두수가 감소해 배합사료 수요가 감소될 것이다.

표 2. 가축 생산액 및 사육비 중 농후사료비

가축	생산액(백만원)	사육비 중 농후 사료비	
		두당 비율(%)	금액(백만원)
한육우	3,147,876	22.4	765,604
젖소	31,817	20.9	6,650
돼지	3,758,562	45.6	1,713,904
닭	1,113,185	48.7	542,121
오리	649,007	48.7	316,066
합계	8,700,447	-	3,344,345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등 11개 국책연구기관이 2007년 4월 30일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생산은 연평균 8,700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 중에서 축산부문을 보면 쇠고기 1,811억원, 돼지고기 1,528억원, 닭고기 707억원, 유제품 504억원, 기타 114억원으로 도합 4,664억원의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에서는 지나치게 과소평가되어 이는 “지원대책 마련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여론에 한·미 FTA의 긍정적 측면만을 호도해 아직까지 제기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의 부정적 결과를 숨기기 위한 조작”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배합사료를 이용하여 사육하는 주요 가축 2005년도 생산액을 보면 한육우 3조 1,478억원, 젓소 318억원, 돼지 3조 7,586억원, 닭 1조 1,132억원, 오리 6,490억원 도합 8조 7,004억원이 된다. 여기에 두당, 또는 수당 사육비 중에서 농후사료비가 차지하는 축종별 비율을 적용하면 가축사육비 중 농후사료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계산되는 데 이것이 3조 3,443억원에 달한다. 만일 한·미 FTA가 체결되어 가축생산의 10%만 감축된다 해도 배합사료 시장은 전체 농후사료비 3조 3,443억원의 10%에 해당되는 3,344억원만큼 축소되어 배합사료업계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사료산업은 독자적으로 존립할 수 없고 축산업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누차 강조한 이유를 바로 이 수치가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사료업계도 한·미 FTA가 체결되어 가축생산이 감축되는 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는 정도로 보아서는 안 된다. 한국의 사료산업은 한국의 축산업과 운명을 같이하는 공생공존의 전략을 세워야 한다. ㉟

